

게 되었다. 더불어 공화당, 신민당 그리고 재야로 지칭되었던 이른바 ‘3김’인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집권을 향한 무한 경쟁은 자제력을 잃은 사회의 무질서와 함께 극도의 혼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 5월 17일,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되었으며[그 이전에는 제주도를 제외] 5월 18일에는 비극의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다. 이에 1980년 5월 20일, 국무총리 신현확은 국내 소요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를 최규하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박충훈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며 개각을 단행하였다. 5월13일에는 주요 행정 각료 10명과 군 요직자 14명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관으로 설치하였으며, 그 산하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장에 1979년 12월 12일에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임명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구속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를 이른바 12·12사태라 한다.

그 후, 중앙정보부장서리 겸 국군보안사령관에 실질적으로 군을 장악한 전두환 중장을 임명하였다. 이때부터 국보위는 숙정, 사회 정화, 교육개혁, 언론계 정화, 언론기관 통폐합, 중화학공업 투자 조정, 농업용수 개발 등의 일들을 단기간 내에 처리하며 실질적인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게 되었다. 이에 최규하 대통령은 8월 16일, 재직 8개월 20여 일 만에 대통령직을 사임하였으며, 이 자리를 박충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였다.

## 제5절 제5공화국

1980년 8월 16일, 위기관리정부를 이끌어 오던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함으로써 공석이 된 제1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8월 27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때 12·12 쿠데타 이후, 실권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장이 8월 22일 전역하여 현역을 면하면서 단독으로 입후보하였다. 선거 결과, 재직 대의원 2,540명 중 2,52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무효 1표를 제외한 2,524표를 얻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같은 해 9월 1일에 취임식을 가졌다.

최규하 대통령은 12월 7일에 긴급조치를 해제함으로써 비로소 헌법 개정 논의가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각계각층에서는 새 헌법에 대한 부푼 기대로 헌법 개정 논의는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신민당은 재빨리 헌법 개정 요강을 작성하여 12월 중순에 공청회를 끝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도 6인의 학자에게 의뢰하여 헌법 시안을 80년 1월 15일에 작성 및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하였다. 국회도 1월에는 헌법 개정 특별 심의위원회를 조직하고 공청회를 경향 각지에서 열기도 하였다. 국회는 헌법 개정에 있어 주도권

을 장악하려 하였고 정부는 정부대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개헌안에 대한 단일안 작성 이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국회헌법개정심의 특별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친 뒤, 국회 안을 5월 15일에 마무리 지었다.

이에 반하여 정부의 개헌 작업은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였다. 1980년 1월 8일에는 헌법 개정안의 대통령 발의 방침을 발표하고, 1월 19일에는 법제처에 헌법 연구반을 발족시켰다. 3월 14일에는 헌법개정심의위원회가 발족하였으며, 3월 28일에는 1차 회의가 소집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특별고문 1명과 각계인사 67명으로 구성되었다. 4월 4일에는 제2차 회의를 열어 개헌의 정부 주도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5월 15일부터는 공청회를 열기로 확정하였다. 정부의 헌법 개정 공청회 계획은 국민의 반발로 취소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헌법개정심의위원회는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요강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헌법 개정이 주도 문제와 헌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었다. 소위 2원 집정부제 개헌에 대한 반대 시위와 계엄 해제 요구 등으로 정국은 혼란하였고, 5월 17일에는 비상계엄령이 전국에 확대 실시되었다. 비상계엄의 확대 시행과 함께 국회는 집회가 불가능해졌고 학원은 폐쇄되었다.

1980년 9월 9일, 제11차 회의에서 요강작성 소위원회가 작성한 시안을 보고 받고서 헌법 개정안으로 확정하였으며, 헌법개정심의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 헌법 개정안은 정부 형태에 있어서 대통령중심제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일부 가미시킨 형태로 볼 수 있다. 국회는 단원제로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규정하였으며, 국회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제3공화국에서 사용하였던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권력 구조와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7년 단임의 대통령에게 여전히 비상조치권과 국회 해산권 등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여전히 대통령의 선출이 간접선거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더불어 대통령의 임기 조항과 관련된 개헌 시에, 개헌 당시의 대통령은 신헌법에서의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여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장기 집권의 길을 봉쇄하였다.

이 헌법 개정안은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의결되었다. 9월 29일에는 국무회의가 헌법 개정을 발의하기로 의결하고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이 끝난 10월 22일에는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제5공화국 헌법으로 확정되었다. 이 투표에는 1980년 7월 31일 현재 인구 31,589,091명의 54.4%인 20,373,869명이 투표권자로, 이 중 95.5%인 19,453,92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91.6%라는 유례없는 투표율과 찬성률을 보였으며, 신기록으로써 확정되었다. 이 국민투표에 관한 상황은 <표 62>와 같다.

&lt;표 62&gt; 제5차 국민투표 상황

구분	투표인 수 (부재자 수)	투표수 (부재자 수)	유효 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 율 (%)	유효 투표 율(%)	찬성 률 (%)
			찬성	반대	계					
전국	20,373,869	19,453,926	17,829,354	1,357,673	19,187,027	266,899	919,943	95.5	98.6	91.6
경북	2,695,724	2,613,751	2,456,928	126,586	2,583,514	30,231	81,979	97.0	98.8	94.0
울진군	50,250	49,537	47,982	1,257	49,239	288	723	98.6	99.4	96.9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정부는 1980년 10월 27일에 제5공화국 헌법을 공포하여 당일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회의원 임기는 종료되었고[부칙 제5조], 정당은 해산되었으며[부칙 제7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폐지되고 그 대의원의 임기는 종료되었다[부칙 제4조]. 국회의 권한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대행하게 되어 국가보위입법회의를 각계의 대표자로 구성하여 이날로부터 입법 활동을 개시하였다[부칙 제6조].

1980년 10월 22일, 제5차 국민투표를 거쳐 제5공화국 헌법이 확정된 후, 1980년 5월 17일 계엄 포고 10호로 중지되었던 모든 정치 활동 중에서 정당 창당과 정당 기구 운용을 위한 옥내 집회가 11월 22일, 계엄 포고 15호로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서 민주한국당을 선두로 민주정의당 등의 정당들이 창당 선언을 하고 정당 결성을 본격화하였다.

헌법안 확정 이후 국회의 역할을 대행하였던 국가보위입법회는 12월 31일에 법률 제 3331호로 대통령선거법을 공포하였는데, 이 법에 따른 제12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인 선거와 대통령선거로 양분되었다. 헌법과 대통령선거법에 따라 정당 소속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5,0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통령선거인을 선출하게 되었다. 이들 선거인은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으나,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제외되며, 당선 후에 대통령선거 시까지 자격을 가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되면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헌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조직된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에 본인이 원할 경우,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1980년 11월 말부터 본격화되었던 정당 결성 움직임은 1981년에 들어서면서 속속히 창당대회를 열고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였다. 개혁의 주도 세력이 된 민주정의당은 1981년 1월 15일에 창당대회를 열고 대통령 후보와 당총재로 전두환 대통령을 추대하였고, 구(舊) 신민당의 계승을 표명하고 나선 민주한국당은 1월 17일에 창당대회를 열고 유치송을 대통령 후보와 당 총재로 추대하였다. 또한, 3·4공화국의 집권 세력을 자처하는 한국국민당은 1월 23일에 창당대회를 열고 김종철을 대통령 후보와 당 총재로, 그리고 선명 야당을 표방한 민권당은 1월 23일 정당대회를 열어 김의택을 대통령 후보와 당 총재로 추대하였다.

이에 따라서 4당의 대통령 후보가 등록을 마쳤으며, 대통령을 선출할 대통령선거인 선거가 본격화되었다. 이 선거에서는 전국 1,909개의 선거구에서 5,278명의 선거인을 선출하게 되었다.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9,479명이 등록하였으나, 이후 사망 2명, 등록 무효 8명, 186명의 사퇴로 실제적 등록자는 9,283명이었다. 이 중 113개의 선거구에서 18명의 선거인을 뽑게 되었는데 40명이 입후보 등록을 하여 2.2: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다. 울진군에서 당선된 18명의 당선자를 소속별로 보면, 민주정의당이 8명, 무소속이 10명이었다.

1월 29일에 등록 접수가 마감된 대통령선거인선거에 관한 통계는 <표 63> 및 <표 64>와 같다.

<표 63> 대통령선거인선거 상황

구분	유권자	투표자	투표율(%)	후보자 수	당선자 수	무투표
전국	20,944,034	15,599,252	78.1	9,283	5,278	288
경북	2,762,978	2,213,188	80.6	1,394	755	
울진군	50,921(1,713)	46,032(1,601)	84.5	40	18	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표 64> 울진군 각 읍·면별 당선자 득표 상황

선거구명	후보자 성명	주소	직업	생년월일	학력	정당명	경력	득표수
울진읍	최학석 (崔學錫)	울진읍 읍내리 411-1	상업	41.09.01	국졸	무소속	신문지국장	1,790
	장년수 (張年壽)	울진읍 읍내리 449	상업	36.01.12	대퇴	민주 정의당	울진군보건소 근무	2,073
	임성율 (林成律)	울진읍 읍내리 576-25	상업	27.01.01	경찰 전문졸	민주 정의당	면장	2,455
평해읍	황유청 (黃有淸)	평해읍 삼울리 564	농업	30.04.25	대퇴	민주 정의당	예비군중대장	2,085
	정삼엽 (鄭三燁)	평해읍 후포리 581-5	상업	32.09.05	대졸	민주 정의당	라이온스회장	3,172
	이성상 (李星相)	평해읍 후포리 504	수산업	32.04.22	고졸	무소속	수협장 직무대행	1,983
북면	장주한 (張住漢)	북면 소곡리 173	농업	27.04.19	국졸	민주 정의당	울진행정자문위원	1,079
	김경하 (金敬河)	북면 부구리 565	농업	39.10.25	대졸	무소속	교사 22년	1,176
서면	김영규 (金英珪)	서면 광회리 170	농업	28.07.10	국졸	무소속	농협리동조합장	406
	사극환 (史極煥)	서면 삼근리 231	상업	30.10.02	국졸	민주 정의당	예비군중대장	685

선거구명	후보자 성명	주소	직업	생년월일	학력	정당명	경력	득표수
근남면	윤근춘 (尹根春)	근남면 노음리 326	건설업	36.06.08	국졸	무소속	근남면 청년회장	874
	김선진 (金善珍)	근남면 구산리 400	농업	35.01.15	중졸	민주 정의당	우체국장 이장 9년	995
원남면	윤병숙 (尹柄淑)	원남면 매화리 1143	상업	25.11.16	국졸	무소속	공화당관리장	1,550
	김대식 (金大植)	원남면 도산리 958	농업	38.03.03	중졸	무소속	이장 6년	1,229
기성면	오완섭 (吳完燮)	기성면 척산리 211-8	상업	35.06.15	중졸	무소속	신문지국장	1,136
	임방갑 (林邦甲)	기성면 구산리 250	수산업	41.12.14	중졸	민주 정의당	새마을지도자	1,041
온정면	정광수 (鄭光洙)	온정면 소태리	상업	40.04.28	고졸	무소속	신문지국장	830
	황재록 (黃再祿)	온정면 덕인리 1491	농업	42.08.14	중졸	무소속	단위조합감사	735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각 읍·면별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자의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울진읍에서는 전학봉 1,473표, 장철수 1,521표, 박헌술 1,329표, 김홍경 1,052표, 평해읍은 황종경 1,477표, 김문식 1,774표, 북면은 전광대 637표, 이상징 369표, 박일기 634표, 서면 김문수 303표, 김동환 368표, 한성읍 213표, 근남면은 이은균 782표, 황대운 760표, 원남면은 임구식 912표, 기성면은 김동룡 768표, 안병국 942표, 김성태 484표, 온정면은 차만득 415표, 전명수 576표, 김진방 347표, 황근 128표이다. 전국 대통령선거인 선거 결과, 민주정의당이 3,675명[69.6%], 민주한국당이 411명[7.8%], 한국국민당이 48명[0.9%], 민권당이 20명[0.4%], 그리고 무소속이 1,123명[21.3%]이 당선되었다.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1981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했다. 이에 제12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하여 1981년 2월 25일에 실시되었으며, 입법 회의 의결에 따른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이루어졌다. 대통령 후보로는 민정당의 전두환, 민한당의 유치송, 국민당의 김종철, 민권당의 김의택으로, 총 4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두환 단독 후보였고, 그 외는 들러리 후보였다. 선거 결과, 대통령 선거인단 5,277명 중 5,271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전두환 후보는 90.23%인 4,755표를 얻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 외로, 유치송 후보는 7.67%인 404표, 김종철 후보는 1.61%인 85표, 김의택 후보는 0.49%인 26표를 얻었다.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민주정의당 후보인 전두환 대통령은 3월 3일에 취임하여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한편, 제5공화국 출범의 마지막 정치 일정인 제11대 국회의원선거가 3월 25일에 실시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은 국회의원선거 제도와 관련하여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비례대표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새 헌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새 국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던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당의 보호와 정당 운영 자금의 국가 보조를 규정한 헌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당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당의 창당과 유지를 보다 쉽게 하도록 당원의 자격, 법정지구당 수 및 법정지구당원 수를 보다 완화한 정당법을 1980년 11월 25일에 법률 제3263호로 제정 및 공포하였으며, 국회의원선거법을 1981년 1월 29일에 법률 제3359호로 제정 및 공포하였다.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 선거구[29개]와 전국 선거구로써 2가지로 하여 총 의원 수는 지역구에서 각 선거구당 2명씩을 뽑고, 전국구는 의원 정수의  $\frac{1}{3}$ 인 92명으로 모두 276명으로 하였다. 제1당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제1당에 전국구 의석의  $\frac{2}{3}$ 를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  $\frac{1}{3}$ 은 지역구 선거의 의석수에 있어 제2당 이하의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며, 전국구에서의 당선은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제출한 전국구 후보자 명단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결정되었다. 또한, 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정당추천이나 선거권자 500인 이상, 700인 이하가 기명한 추천장을 첨부하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당추천 후보는 700만 원, 무소속 후보는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였다.

이 선거의 전국적 상황은 다음 <표 65> 및 <표 66>과 같다.

<표 65> 제11대 국회의원선거 상황

구분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기권자 수	투표율 (%)	유효 투표율 (%)
		유효	무효	계			
전국	21,094,468	16,207,325	190,520	16,397,845	4,696,623	78.4	98.8
경북	2,772,236	2,237,556	20,533	2,258,689	514,147	81.5	99.1
영덕·청송·울진군	137,638 (5,115)	119,628	1,009	120,637 (4,912)	17,001	87.6	99.2
울진군	51,397 (1,738)	42,523	321	42,844	8,553	83.4	99.3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lt;표 66&gt; 제11대 국회의원선거 전국 정당별 당선자와 득표율 상황

정당 단체	후보자 수			당선자 수			득표수	득표율(%)
	지역구	전국구	계	지역구	전국구	계		
민주정의당	92	75	167	90	51	141	5,576,624	35.6
민주한국당	91	45	136	57	24	81	3,495,829	21.6
한국국민당	75	29	104	18	8	26	2,147,293	13.3
민권당	82	21	103	2	-	2	1,088,847	6.7
원일민립당	13	6	19	-	-	-	76,863	0.5
신정당	54	15	69	2	-	2	676,921	4.2
안민당	12	3	15	1	-	1	144,000	0.9
사회당	20	6	26	-	-	-	122,778	0.8
한국기민당	15	6	21	-	-	-	103,893	0.6
통일민족당	10	5	15	-	-	-	87,977	0.5
민주농민당	15	4	19	1	-	1	227,715	1.4
민주사회당	50	13	63	2	-	2	524,361	3.2
무소속	106	-	106	11	-	11	1,734,224	10.7
계	635	228	863	184	83	267	16,207,325	1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경북 제11 선거구인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에서는 한국국민당의 남상걸, 민주사회당의 장소택, 민권당의 신무룡, 민주정의당의 김종권, 사회당의 전창수, 민주한국당의 김찬우가 등록하였다.

경북 제11 선거구의 후보등록상황과 득표상황은 <표 67> 및 <표 68>과 같다.

&lt;표 67&gt; 제1대 국회의원 경북 제11선거구 선거상황

소속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한국 국민당	남상걸 (南相杰)	47.02.20	청송군 현동면 거성동 492	기업인 (제망업)	영남대경영 대학원1년수료	남성장학회회장 남성산업사대표	23,287	
민주 사회당	장소택 (張蘇宅)	34.05.01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26-33	사업 (문화)	고려대경영 대학원수료	전대중당지구당위원장 현민주사회당 경북11지구당위원장	9,475	
민권당	신무룡 (申武龍)	35.06.23	서울 강동구 잠실6동 장미 APT1-801	삼성강제 대표이사	경희대경영 대학원재학	삼성강제대표이사	5,860	

소속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민주정의당	김중권 (金重權)	39.11.25	영덕군 영덕읍 덕곡동 199	변호사	고려대법과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장, 서울고등법원판사	49,144	당선
사회당	전창수 (田昌秀)	37.02.15	서울 성동구 자영동 220-217	상업	고려대경영대학원수료	전영상사대표, 사회당중앙집행위원	1,714	
민주한국당	김찬우 (金燦于)	33.01.15	영덕군 영덕읍 남석동 228	의사	경북대의과대학원수료	의학박사, 제일의원장 영덕군의회사회장	30,148	당선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lt;표 68&gt; 제11대 국회의원 경북 제11선거구 후보자 및 지역별 득표 상황

정당명	후보자명	득표 수				비율(%)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	계	
한국국민당	남상길	13,962	5,211	4,114	23,287	19.5
민주사회당	장소택	608	1,402	7,465	9,475	7.9
민권당	신무룡	1,405	3,078	1,377	5,860	4.9
민주정의당	김중권	8,776	16,287	24,081	49,144	41.1
사회당	전창수	211	470	1,011	1,692	1.4
민주한국당	김찬우	4,137	21,558	4,453	30,148	25.2
득표수 합계		29,099	45,006	42,501	119,628	100
선거인 수		35,061	51,180	51,397	137,638	
인구 수		67,194	93,320	97,148	257,662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선거 결과, 민주정의당의 김중권 후보와 민주한국당의 김찬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김중권 의원은 전반기에는 건설위원회에, 후반기에는 문공위원회에 소속되었으며, ‘영화법 중 개정 법률안’과 ‘언론기본법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민주한국당의 김찬우 의원은 전반기에는 보사위원회에, 후반기에는 보사위원회 및 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및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한편 전국 선거구 당선자는 민주정의당 61명, 민주한국당 24명, 한국국민당 8명이 당선되었으며, 기성면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11기 졸업생으로 육군 대령을 거쳐 정무개발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안교덕이 민주정의당 전국구 후보로 당선이 되었다. 전반기에는 상공위원회에, 후반기는 국방위원회에 속하였으며, 원남면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였다. 또한 흥진주택산업(주) 대표이사를 지낸 이중희가 민주한국당 전국구 후보 11번으로 당선되어 전반기에는 건설위원회에, 후반기는 건설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제5공화국은 출범 이후, 민주정의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협력하에 표



면적으로는 평온 속에서 정치 일정이 진행되었다. 정치풍토쇄신법에 의하여 정치 활동이 규제되었던 인사들은 재야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중 전(前)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은 1981년 4월 30일, 연금에서 풀려난 후에 동지 규합을 목적으로 6월 9일, 민주산악회를 결성 하였으며, 1983년 5월 18일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며 23일간의 단식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980년 봄에 조직되었던 김대중계의 민주헌정연구회와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즉 단식을 계기로 재야인사들을 중심으로 민주국민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1983년 8월 15일에 김영삼·김대중 양인의 공동성명을 계기로 양계보의 연합이 본격 추진되었다. 이때 김영삼계와 민헌연의 일부 참여파와의 합세로 1984년 5월 18일, 민주화추진협의회가 결성되었다. 민주협은 이후 제1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신당을 결성하였으며, 참여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1984년 11월 30일 제3차 해금에서 풀려난 인사를 중심으로 민주계와 비민주계의 연합으로 신한민주당을 창당하였다. 신한민주당은 12월 20일에 창당발기인대회와 1985년 1월 18일의 창당대회를 통하여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12대 국회의원선거가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 적용된 국회의원법은 1984년 7월 25일에 법률 제3731호로 개정되었는데, 종전의 선거법과 결이 비슷하였다. 이 선거에서 3차 해금자와 재야의 김영삼, 김대중을 중심으로 자생야당을 표방하고 창당된 신한민주당은 짧은 창당 일정과 선거 준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선제를 선거 구호로 내세우고 관제 야당이 아닌, 자생 야당으로 선명성을 내세워 정계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신한민주당은 정책 지구 설정과 운동권 학생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등 야당의 행보와 선거 전에 귀국한 김대중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반적 예상을 깨고 제1야당으로 등장하였다. 이 선거에서 야당은 모두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과 제5공화국 하에서 터진 대형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강도 높은 대정부 공세를 펼쳤다.

전국 92개 선거구의 등록 마감 결과, 총 184명의 지역의원정수에 440명이 등록하였다. 11대 의원선거와 대조적으로 무소속 참여자가 많이 줄었으며, 참여 정당의 수도 줄었다. 12대 의원선거의 정당 단체별 후보자 수와 득표율 및 당선자 수는 다음 <표 69> 및 <표 70>과 같다.

<표 69> 제12대 국회의원 전국·경북·영덕·청송·울진군(8선거구) 투표 상황

구분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기권자 수	투표율 (%)	유효투표율 (%)
		유효	무효	계			
전국	23,987,830	19,974,643	312,029	20,286,672	3,701,158	84.6	98.5
경북	1,865,046	1,622,624	23,677	1,646,301	218,745	88.3	98.6
영덕·청송·울진군	139,537	120,353	2,107	122,460	17,077	87.8	98.3
울진군	54,392	44,224	692	44,916	9,476	82.6	98.5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lt;표 70&gt;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전국 정당별 당선자와 득표율 상황

정당 단체	후보자 수			당선자 수			득표수	득표율(%)
	지역구	전국구	계	지역구	전국구	계		
민주정의당	92	81	173	87	61	148	7,040,811	35.25
신한민주당	93	30	123	50	17	67	5,843,827	29.26
민주한국당	92	31	123	26	9	35	3,930,966	19.68
한국국민당	71	25	96	15	5	20	1,828,744	9.16
신정사회당	18	2	20	1	-	1	288,863	1.45
민권당	12	1	13	-	-	-	75,634	0.38
자유민족당	4	-	4	-	-	-	17,257	0.09
근로농민당	16	1	17	-	-	-	185,859	0.93
신민주당	13	-	13	1	-	1	112,654	0.56
무소속	29	-	29	4	-	4	650,028	3.24
계	440	171	611	184	92	276	19,974,643	1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울진군은 영덕군·청송군과 합하여 경북 제8선거구였다. 후보자로는 신한민주당의 김찬우, 민주정의당 김종권, 민주한국당의 황병우, 신주당의 박종욱, 한국국민당의 오준석 등 모두 5명이 등록하였다. 제12대 의원선거에서의 후보 등록 상황과 득표상황은 <표 71>~<표 73>과 같다.

&lt;표 71&gt; 제12대 국회의원선거 경북 8선거구(영덕·청송·울진군) 선거 결과

소속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신한 민주당	김찬우 (金燦宇)	33.01.15	영덕군 영덕읍 남석동 289	국회의원	경북대 대학원수료	제11대국회의원 재향군인회영덕분회장	23,882	
민주 정의당	김종권 (金重權)	39.01.25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130-2	국회의원	서울 사법대학원 수료	제11대국회의원 서울고등법원판사 올림픽특별위원	51,624	당선
민주 한국당	황병우 (黃炳禹)	31.10.16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강마을 APT A-209	정치인	영남대 중퇴	제10대국회의원 재향군인회중앙대의원	27,696	당선
신민주당	박종욱 (朴鍾郁)	45.05.20	청송군 파천면 어천동 97	정치인	동아대 농대졸	정치문화연구소이사 농촌문제연구소장	3,109	
한국 국민당	오준석 (吳俊碩)	27.04.09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65-2	농업	부산대 법대졸	제7,8,9,10대국회의원 국회보사위원장	14,042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lt;표 72&gt; 제12대 국회의원선거 경북 8선거구 울진군 선거 정당 및 후보자별 득표결과

읍·면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 투표자 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정당 및 후보자별 득표수					계			
			신한민주당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신민주당	한국국민당				
			김찬우 (金燦于)	김중권 (金重權)	박종욱 (朴鍾郁)	박종욱 (朴鍾郁)	오준석 (吳俊碩)				
울진읍	15,697	12,723	1,671	6,294	1,002	369	3,248	12,584	139	2,974	81.1
평해읍	13,258	10,817	779	6,483	995	249	2,147	10,653	164	2,441	81.6
북면	6,710	5,729	785	2,927	706	181	1,050	5,649	80	981	85.4
서면	2,055	1,741	262	1,012	144	40	240	1,698	43	314	84.7
근남면	3,840	3,229	469	1,693	187	81	750	3,180	49	611	84.1
원남면	4,281	3,568	536	2,086	313	96	481	3,512	56	713	83.3
기성면	4,983	4,080	372	2,476	377	111	667	4,003	77	903	81.9
온정면	3,568	3,029	346	1,480	585	100	434	2,945	84	539	84.9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lt;표 73&gt; 제12대 국회의원선거 경북 8선거구(영덕·청송·울진군) 선거 결과

후보별 군별	신한민주당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신민주당	한국국민당	합계
	김찬우	김중권	황병우	박종욱	오준석	
영덕군	17,269	18,634	6,578	963	3,529	46,973
청송군	1,393	8,539	16,809	919	1,496	29,156
울진군	5,220	24,451	4,309	1,227	9,017	44,224
합계	23,882	51,624	27,696	3,109	14,042	120,353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제1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민주정의당의 김중권 의원은 전반기에는 내무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후반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및 민주정의당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였다. 또한, 1988년 3월 10일에 구성된 13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한 10인 공천심사특위에 경북 대표로 참가하였다. 주요 의정 활동으로는 ‘병역법 중 개정 법률안’과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민주한국당의 황병우 의원은 농림수산위원회에 속하였다. 출향인사로는 서면 출신의 박승국 후보가 대구 북구에서 출마하여 낙선하였는데, 안타깝게도 낙선자 중 전국 최다 득표하였다.

제5공화국 헌법이 실시된 이후,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국회의 권한 약화와 사법권의 종속화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특히 통치권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하여 1983년 이후 대통령직선제로의 헌법 개정이 요구되었다. 그 흐름을 타기 위해 신생 야당인 신민당은 1985년 2월 12일 총선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선거 구호로 내세웠으며, 그들의 바람대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제1야당이 되어 제5공화국 헌법을 대통령직선제로 개헌할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이 당시 전두환 대통령도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을 제안한다면 이를 받아들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여·야간에 개헌 협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내 전두환 대통령은 1987년 4월 13일, 촉박한 정치 일정 등으로 인하여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담화를 표명하였다. 그 후 신민당은 내분으로 인하여 김영삼, 김대중을 추종하는 세력이 각각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으로 갈라졌다.

이어 4·13 호헌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정치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학생과 시민들이 1987년 6월 10일 대회와 6월 25일, 평화 대행진을 강행하였으며,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 겸 대통령 후보가 시국수습 안으로 제기한 대통령직선제를 포함한 8개 항의 6·29선언에 따라 정부의 4·13 개헌유보선언은 폐기되었고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이때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은 여·야합의 원칙에 따라, 1987년 9월 18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 재적의원 272명 중 264명의 서명으로 제출되었으며, 10월 12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절대다수로 통과하였다.

제9차 개정헌법인 새 헌법은 특히 평화적 정권교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새 헌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민주적 정당성을 어느 헌법보다도 회복하였다. ② 본 헌법은 개헌안 작성 과정에서 여·야간의 타협과 양보를 통한 합의의 절차와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우리 헌정사상 4·19 이후의 제3차 개정헌법 이래 처음이었다. ③ 개헌의 절차 과정이 민주적이었다. ④ 현 정권이 존속하고 있는 가운데 행하여진 개헌은 모두 집권자의 장기 집권을 추구하였던 것이었으나, 이 개헌은 그렇지 않았다.

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와 유신체제 이후에 비대해졌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여 의회와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되찾는 것이었다. 즉, 5년 단임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선거로써 선출하며, 대통령에 의한 국회 해산권을 삭제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시켰으며,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하였다.

여·야의 합의에 의해 발의되고 통과된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1987년 10월 27일에 실시되었다. 이 국민투표는 정부에 의한 강제 동원이 없음은 물론이고 유권자들이 통과를 확신하였기 때문인지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제6차 국민투표에 대한 결과는 <표 74>와 같다.

&lt;표 74&gt; 제6차 국민투표 상황

구분	투표 인수 (부재자수)	투표수 (부재자수)	유효 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 표 율 (%)	유효 투표 율 (%)	찬 성 율 (%)
			찬성	반대	계					
전국	25,619,648	20,028,672	18,640,625	1,092,702	19,733,327	295,345	5,590,976	78.2	98.5	93.1
경북	1,882,286	1,728,173	1,606,634	96,308	1,702,942	25,231	154,113	91.8	98.5	93.0
울진군	54,956	50,341	47,354	2,312	49,666	675	4,615	91.6	98.7	94.1
울진	9,452	9,040	8,559	356	8,915	125	412	95.6	98.6	94.7
평해	4,630	4,277	4,042	185	4,227	50	353	92.4	98.8	94.5
북면	7,399	6,693	6,299	305	6,604	89	706	90.5	98.7	94.1
서면	1,966	1,784	1,657	97	1,754	30	182	90.7	98.3	92.9
근남	3,685	3,461	3,252	162	3,414	47	224	93.9	98.6	94.0
원남	4,062	3,769	3,536	168	3,704	65	2293	92.8	98.3	93.8
기성	4,630	4,302	4,031	215	4,246	56	328	92.9	98.7	93.7
온정	3,493	3,175	2,936	186	3,122	53	318	90.9	98.3	92.5
죽변	7,427	6,579	6,176	313	6,489	90	848	88.6	98.6	93.9
후포	8,212	7,261	6,866	325	7,191	70	951	88.4	99.0	94.6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 제6절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제13대 대통령선거는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신헌법 부칙에 따라서 헌법 시행일 40일 이전까지 실시되는 규정에 따라서 실시되었다. 1987년 6·29선언과 여야합의에 의한 개정안 확정 후 선거전은 본격화되었다. 민주정의당에서는 노태우 대표위원이 6·10 전 당대회 이후부터 대통령 후보로 활동하였고, 통일민주당에서는 11월 9일 임시전당대회에서 김영삼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으며, 평화민주당은 11월 12일에 창당 및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에서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오랜 야인 생활에서 9월 28일 정계 복귀 선언을 한 김종필은 10월 30일에 열린 신민주공화당의 창당 및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백기완 후보는 야권 단일화를 요구하며 중도 사퇴하였다.

선거전은 후보자의 직접 유세와 찬조 연설자에 의한 유세 및 TV를 통한 정견발표 등으로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12·12사태, 5·17사태, 5공 비리 등이 또한 주요 이슈이었다. 그러나 실